

목어

깨달음의 민주주의

“왜 양반은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할까?”

자신의 주장을 성급히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속삭인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그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 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잡히기 시작한다. 그것은 처음에는 이성을 통해 이해되고, 그 다음에는 가슴에 와 닿는다.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러한 조그만 눈썹이 내 가슴에 잔잔한 기쁨으로 번져 나간다.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9월 열렸던 화엄광장 첫번째 마당. 그날 토론의 내용도 귀했지만, 서로 마주하여 마음을 열고 이야기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자리였다. 우리 중생이 모두 부처이고,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믿음, 이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그 불성의 빛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찬연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아닐는지? 우리의 조그만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닫는 것들, 그것들은 불성과는 다른 것으로 하찮게 취급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병이 아닐는지?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는 동안 그 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귀한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깨달음의 빛이라고 느껴진다.

공급적인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 지금 우리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조그만 깨달음을 어디 견줄 수가 있겠는가만, 그렇다고 하여 우리들이 하루 하루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면서 느끼는 조그만 깨달음들을 하찮은 알맹이로 치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공급적인 깨달음을 저 먼 곳에 두고,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과 더 먼 것은 아닐까? 조그만 깨달음을 모으고 또 서로 나누는 가운데 부처님의 큰 깨달음으로 열려져 가는 길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성대웅 (건국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총무원장 자질 시비... 결국 '두 원장'

태고종 내분 '왜 이 지경까지'

'7인방' 이해득실 따라 양분 갈등 심화 "소송 안된다... 대화로 풀자" 희망사향

종연 총무원장의 자질 시비로 시작된 태고종 분규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현 총무원측에서 13일 열린 임시총회가 불법이며, 운산스님을 지지하는 스님들이 계속 종건에 도전할 경우 사정원을 통해 중징계한다는 강경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총무원측과 비주류(운산스님을 지지하는 종회의원 등 스님들)측의 향후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내분은 종연 총무원장의 자질시비로 비롯됐지만 세칭 7인방으로 불리는 태고종 종진 스님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종정스님 유시까지 양쪽에서 이용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1표차 당선' 마찰불씨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태고종 제 79회 중앙총회에서 종연스님이 운산스님을 1표로 누르고 당선되고부터 문제는 시작

됐다. 운산스님을 지지했던 인공스님(봉원사 주지)은 12월 초 종회의장에 보내는 청원서 형식으로 종연스님이 가야산 유사종교단체에 심취해 있다는 등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는 신문공고를 냈다. 대은(종무원장협의회) 원법전 총무원 부원장 스님 등도 있따라 성명서 등을 내려가세했다. 일부 종회의원들은 3월 임시총회에서 종연 총무원장에 대한 탄핵이 있을 것을 공공연히 시사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종연 총무원장은 2월 1일 담화문형식을 빌어 "자신에 대한 일체의 시비가 다 근거가 없고 음해"라고 밝혔다. 담화문이 나오자 사태가 급진전되기 시작했다. 총무원이 '14일 3원장과 각급기관장 회의를 열어 3월 총회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자 중앙총회는 재빨리 14일보다 하루먼저인 13일에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했다. 이때부터 총무원과 종회간에 팽팽한 줄다리기 game이 벌어졌다. 총무원은 종회법



태고종 총본산 선암사는 총무원측과 중앙총회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13일 종단분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신문을 폐쇄, 양측의 충돌을 막았다.

제25조 제1항 1호에 '중앙총회의 소집은 종회의장이 총무원장의 동의를 얻어 개최 7일전에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원장의 동의없는 중앙총회 소집은 불법이라고 천명했고, 중앙총회는 24조 1항의 '중앙총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무원장이나 중앙총회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조항을 들어 13일 총회가 적법하고 따라서 종연 총무원장은 탄핵되었고 새로 선출된 법정스님이 총무원장이라고 주장했다.

태고종내 여론도 둘로

총무원측은 급기야 14일, 비주류측이

계속 이유없이 종건에 도전한다면 이를 해행행위로 간주 사정원에 의한 중징계와 임시총회가 무효임을 증명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비주류측은 "종회개최는 입법기구로서의 고유권한인 만큼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 사회법에 제소하겠다는 것이 도리어 해행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종단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지금까지 어느 단체 하나 공식적인 성명서를 내지 않은 것은 태고종내 여론이 거의 반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태고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7인방'이 이해득실에 따라, 운산-대

운-인공 스님, 인공-운경-백우 스님 등 둘로 갈라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맞물린다. '7인방'이란 태고종 창종 이후 사실상 종단행정을 주도하며 3부기관등 요직을 도맡아온 인공 운산 대운 인공 벽파 운경 백우 스님을 지칭한다. 이들은 이른바 조태 분규의 와중에서 '태고 보우스님의 종지를 살려보자'는 도원결의를 통해 74년 애증심으로 굳게 규합했다. 이들은 총무원 부장 등에 전격 기용되며 태고종 위상을 세워주고 성과도 도출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요직 잠식은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

"원로스님 증재나서야"

지난 19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종연스님이 참신하고 젊은 이미지로 후보에 오르자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7인방에 대한 낙심감이 종단 지면에 깔려있어 세대 교체에 대한 바람이 컸던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내분이 악화일로로 걷는다면 결국 분종 탈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해 중립적 입장의 종진 원로들이 나서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태고종은 원로스님들의 모임인 승정원도 있고 각 교구총무원장들의 권한도 만만치 않다. 또 당사자들도 한발짝의 양보해 종단을 위해 모였던 74년 당시 '도원결의'를 떠올리며 대화를 통한 수습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여론이다. 이경숙 기자(gsllee@buddhopia.com)

민주당, 종교위 상설특위로 격상

한나라당, 이총재 - 정대 스님 만남기대

종교계에 눈길주는 정치권

정치권의 불교계에 대한 '공세'가 시작했다. 민주당이 당내 종교위원회 상설특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한나라당 주변에서는 이회창 총재와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곧 만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열린 당4역회의에서 이재정 연수원장은 "종교특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구성돼 있는 비상설 종교특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설화를 통해 종교문제를 실질적으로 전담할 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에 기독교, 가톨릭, 불교 등 종단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종교 지원과 발전 과제 논의,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고, 이에 대해 김중권 대표 등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조직강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의 한 불교인사는 "지난 달 19일 정대스님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비판

발언 이후 종교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이 총재와 정대스님의 만남 여부도 주목된다. 정대스님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곧 만날 것이라는 동아일보의 13일자 보도와 관련, 총무원의 한 부장 스님은 "한나라당의 몇 인사가 올린 말 같다"며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 스님은 "정대스님이 이 총재를 만난다 해도 당시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 총재비서실과 총무원 사이에 두 분의 만남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사서실은 "두 분의 만남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만나다 해도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계 일부에서는 "불교계가 공략 대상인가. 불교가 정치에 무관할 수 없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바른 정치가 되도록 감시하고 종교해야 한다. 정치권은 불교계를 자신들의 정치 목적을 위한 공략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opia.com)

KCRP 올 어떤사업펼치나

종교 중진들 대화캠프 '종교문화 이해' 강좌

86년 창립, 종교간 협의기구로 활동해온 한국종교인 평화회의(KCRP)는 그 동안 종교간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조선종교인협의회와 함께 3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종교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종교 교직자들의 대화캠프를 처음 열기로 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총회에서 확정된 KCRP의 올해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제1회 종단교역자 대화캠프〉 각 종교의 교직자들과 종교 관련 학자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이다. 종교대화분과위원회위원장 김희성 서강대 교수에서 주관해 5월에 캠프를 연다.

그 동안 KCRP를 비롯 여러 단체에서 예비 교역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교간 대화모임은 종종 있었으나, 각 종교의 중진들이 참석해 이해와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는 없었다.

〈종교문화 이해 강좌〉 지난 해에 이어 '젊은 종교인 대화 모임'을 이번 달과 8월, 두 차례 갖



15일 열린 KCRP 정기총회 모습.

는다. 각 종교의 소장종 교역자 및 학자들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종교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와 접근을 시도해 이웃종교를 이해하는 폭을 넓힌다. '이웃종교문화 이해 강좌'는 6월과 8월에 각 6주씩씩 열린다.

〈종교청년 문화 축제〉 각 종교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종교문화를 다양한 예술장르로 표현하는 문화예술축제이다. 7월중 5박6일의 일정으로 열리며,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30여명 정도의 청년들도 참가하도록 해 한국의 종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8.15를 전후해 남북평화통일기원기도회를 주최하고,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에도 적극 참여한다. 또 종교평화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www.opensoul.co.kr)를 상반기중 개통한다. 정성운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부철선원(시민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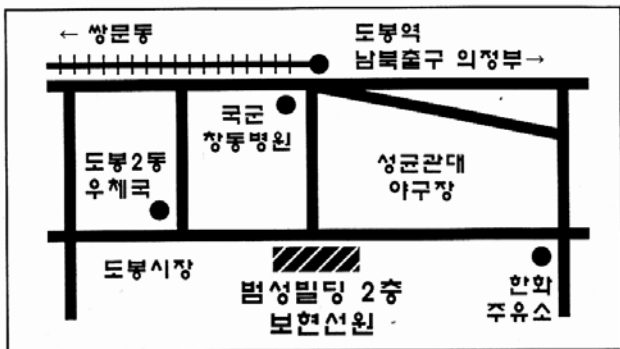
서암대선사 시초청법회

서암대선사 위대한 자기 완성의길

2001년 3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



서암 스님



교통안내

-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서 도보로 5분, 1호선 창동역에서 75번 마을버스를 타고 성균관대 야구장 하차
일반버스: 15, 20, 20-1, 125, 135-1번, 성균관대 야구장 하차

문의: 02) 3494-6441-2

장소: 보현선원 (시민선방)

위치: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성균관대 야구장 맞은편.